업·계·소·식

커뮤니 카토피아 연구소 개관
(주)금성사

금성사(대표 : 이헌조)는 기계부품 등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엔지니어 중심의 기존 연구소 개념을 완전 탈피해 인간 생활문화 등 인간중심의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위한 「커뮤니카토피아 연구소(Communicatopia Research Institute)」를 8월 4일 개관했다.

기존 연구소가 단순제품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연구소는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소라 할 수 있다.

「커뮤니카토피아」란 커뮤니케이션과 유토피아의 합성어이다. 이는 인간 기술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뤄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술, 인간과 자연이 무리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이상사회」를 의미한다.

서울 사당동 쌍립빌딩에 문을 연 커뮤니카토피아 연구소는 박사급 7명, 석사급 8명 등 총 15명의 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구성의 양적인 면에서는 「연구소」랄 수 없을 정도이나 이들의 역할을 보면 기존 연구소와 분명 다른 점을 엿볼 수 있다.

동사는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연구원들도 기술에 정통한 엔지니어가 아닌 사회과학자들로 구성했다.

이들의 연구활동도 제품개발이 아니다. 사람의 인성변화, 사회 및 생활문화의 변화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해 이를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 설계 SW 기술 첫 수출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대표 : 문정환)은 그동안 거의 전량을 수출에 의존해 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했다.

동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인 TMA사와 10만 달러의 착수금과 판매액의 28%를 기술료로 영구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자체 개발한 반도체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SIMS(SPICE Interconnect Modeling System)」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0년 2월부터 6명의 연구인력과 1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지난해 10월 개발, 자체적으로 사용해오다 TMA사의 제의를 받고 이번에 수출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설계기간을 33%이상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TMA사는 4·4분기부터 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툴들을 개발해 전세계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회로도면 설계, 회로 및 배선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자동구성하며 설계된 회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등 신속·편리한 편집, 배선 영향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가 가능한 초고속 통합설계 환경을 제공한다.

중국에 국산 TRS 공급
금성정보통신(주)

금성정보통신은 중국 광동성 혜주시 대아만 지역에 망교환기, 중계기, 단말기 등 총 100만달러 규모의 TRS를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스타렉스-TRS는 금성정보통신이 지난해말 국산화에 성공한 시스템으로 모든 채널로 통화와 제어가 가능한 분산제어 채널방식을 채택, 통화접속률이 높고 통화품질이 양호한 게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말까지 대아만 지역에 설치돼 내년부터 항만 및 육상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체개발한 교환기로 중국 유선통신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동사는 이번 TRS공급계약 체결로 무선통신시장 진출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가전업계 처음 『해피콜 전담팀』 운영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가 가전업계 처음으로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해피콜(Happy Call) 전담팀」을 운영, 24시간 반딧불 서비스에 이어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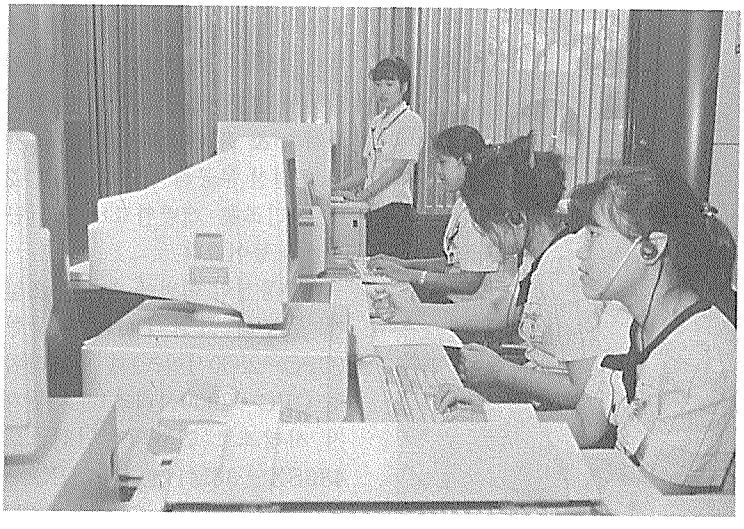
동사의 고객센터 내에 설치, 8월 6일부터 본격운영되고 있는 해피콜 전담팀은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할부구입 소비자들중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된 소비자들에 대해 전화를 통해 미리 정해진 15개 항목에 따라 제품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또는 배달직원의 신속도 및 친절도, 약속시간 정확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된 결과를 서비스와 물류는 물론 해당 제품별 사업부에 통보, 전반적인 고객만족경영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동사는 해피콜 전담팀 운영으로 회사내 대고객 서비스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이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제품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품의 실제 사용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안 및 요구사항 등 폭넓은 소비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코팅 VCR』 인기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가 국내처음 출시한 DLC 코팅 헤드드럼 채용 「초간편 VCR」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DLC 코팅기술이 향후 VCR 시장 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8일 DLC 코팅기술을 적용한 6헤드의 하이파이 고급형(모델명 : DV-G892) VCR 100대를 첫 출시한 이후 26일까지 약 800대가 백화점과 일부 대



형대리점 등 유통망에 공급됐으나 출시 되자마자 소비자들의 주문이 쇄도, 접수된 주문량만도 지금까지 공급량의 2배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전자는 신속한 주문량 소화에 고심하고 있는 데, 27일부터 하루 평균 600대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이번 주말께부터는 주문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전자는 헤드드럼에 DLC를 코팅한 VCR 고급형 1기종을 우선 출시한데 이어 8월에는 신제품 3기종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의 티타늄 코팅 헤드드럼 제품 3개기종에 티타늄 대신 DLC 코팅을 적용키로 하는 등 8월까지 DLC 코팅 헤드드럼 VCR 7개 기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현재 주안공장에 월 25,000대 규모의 DLC 코팅 VCR 헤드드럼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올연말까지 6헤드 하이파이 고급형에서부터 4헤드 및 2헤드의 중저가형에 이르기까지 내수제품 전기종에 DLC 코팅 헤드드럼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며, 주안공장 설비를 늘려 내년까지 수출용 전제품에도 DLC 코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소·식

인도 가전시장 수출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가 최근 인도 앵커사와 대우브랜드 판매계약을 체결, 인도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최근 인도 봄베이시내 타지마할 호텔에서 구즈라시 마하라쉬트라주 재무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귀현 전무와 앵커(Anchor)사와샤 회장간에 계약을 체결, 칼라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청소기 등 4,000만불 상당의 가전제품을 「앵커-대우」(Anchor-Daewoo) 브랜드로 2년간 독점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인도가 국내 전자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 수입을 금하고 있는데 따라 CKD 및 SKD 형태로 공급,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대우전자는 생산설비를 공급 및 설치해 주는 한편 관련기술도 제공키로 했으며, 앵커사는 봄베이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실바사(SILVASSA) 공단내에 부지를 확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다.

국내 최초 카오디오 ISO 9001 인증 획득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는 최근 광주 카오디오 공장이 ISO 9001 인증을 획득,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카오디오의 기술력과 품질보증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대우전자는 카오디오 사업부장 권향중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카오디오 연구소에서 가진 인증서 전달식에서 한국표준협회 부설기관인 한국품질인증센터 (KSA-QA) 로부터 ISO 9001 인증서를 받았다.

대우전자 광주 카오디오 공장은 연간 100여만대의 카오디오를 생산하여 이를 전량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ISO 9001 시리즈중 포괄하는 전반적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카오디오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플러그 & 플레이 레디 기능 PC 출시
대우통신(주)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PC 사용자들이 다양한 관심 분야에 따라 시스템을 추가 확장할 때, 내부의 점퍼나 스위치를 별도로 조절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 플레이 레디 기능을 가진 초절전 무공해 486 그린 PC 2개 시리즈를 개발완료하고 최근 시판에 들어갔다.

대우통신이 이번에 출시한 초절전 무공해 그린 PC는 탁상형(CPC-2800시리즈)과 미니타워형(CPC-2900시리즈) 등 두가지 시리즈로 인텔의 인핸스트 486SX-33MHz, 486DX2-50MHz, 486DX2-66MHz CPU

등을 채택한 총 12개 모델이다.

이 제품들은 ZIF방식의 소켓이 내장되어 있어 CPU교체만으로 486DX4 및 펜티엄 오버드라이브 프로세서까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PIO(Processed Input Output) 모드3 기능을 지원하는 베사로컬 버스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및 대우통신이 자체개발한 ADI2 칩을 장착함으로써 HDD의 전송 속도가 기존의 일반 베사로컬 방식 제품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빠를 뿐만 아니라 윈도우 & 캐드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채택함으로써 강력한 멀티미디어, 윈도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에너지스타 기준(30와트)보다도 낮은 20와트의 초절전 그린기능을 갖춘 이들 제품은 데이타 자동보관을 위하여 기존 제품들이 채용하던 중금속 전지 대신 무공해 리튬 전지를 채택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초절전 무공해 그린 PC이다.

광폭 TV용 CPT 양산
삼성전관(주)

삼성전관(대표 : 윤종용)은 총 800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기존 부산 공장내에 광폭 CPT 전용 라인을 설립, 내년 하반기부터 올해초 개발에 성공한 가로·세로비가 HDTV와 동일한 28, 32인치 CPT를 월간 10만개씩 양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관이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광폭 TV용 전용 양산라인 설립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전량 수입돼 온 16대 9 크기의 CPT 국산대체는 물론 HDTV의 상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관은 양산공장이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기존 수원공장의 파일럿 라인을 통해 32인치 CPT를 우선 월 3,000개씩 시생산에 나서고 28인치 제품은 올해말 개발완료, 내년초부터 생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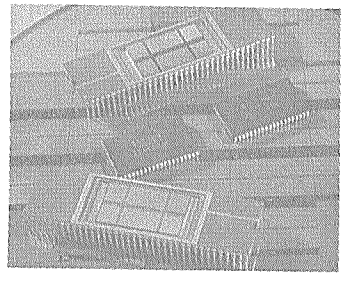
삼성전관이 내년부터 양산할 광폭 CPT는 더블다이내믹스 포커스 방식을 채용, 화면이 선명한 데다 곡률(R)이 2R고 전자총의 네크구경 또한 종전의 37.5㎜에서 32.5㎜로 소구경화한 저소비 전력형으로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도시바·히타치 등 일부 업체만이 상품화에 나서고 있는 고급기종이다.

삼성전관은 이번 16대 9 크기의 CPT 양산공장 설립을 계기로 광폭 TV용 브라운관의 저가격화 연구를 집중 추진하면서 수퍼플랫 HDTV에 이번 제품을 채용, HDTV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세계 최초 256 메가 디램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8월 29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256메가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날 김광호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최초로 단위소자, 2억 7,000만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256메가D램 시제품 개발에 성공, 한국 반도체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과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2년 6개월동안 1,200억원을 들여 개발한 256메가D램은 아직까지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업체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올해안에도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D램 개발력이 일본보다 6개월~1년 가량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256메가D램은 손톱크기의 칩속에 200백자원고지 8만장, 단행본 200권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초고집적 메모리이며, 처리속도는 64메가D램의 50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보다 빠른 40나노초이다.



벽걸이 TV용 액정표시장치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가 꿈의 영상기기로 불리는 벽걸이형

고밀도 액정표시장치(TFT-LCD)를 국내최초로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대각선 크기 14.2인치(두께 3cm)에 26만여가지의 컬러를 동시에 표현해주는 벽걸이 TV용 고성능 TFT-LCD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2년부터 90여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돼 이번에 개발된 14인치 TFT-LCD는 벽걸이 TV뿐 아니라 개인용컴퓨터(PC)에 장착해 그래픽은 물론 동화상까지 구현하는 멀티미디어용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 제품은 선명도를 결정짓는 개구율(화소 1개에서 빛이 나올수 있는 면적의 비) 60%에 921,600개의 화소, 수평 150도·수직 60도의 시야각으로 국내 개발 제품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

TFT-LCD는 일반 액정표시장치와 달리 눈부심이 없는 등 눈의 피로가 없어 시력감퇴나 전자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소비전력도 기존 CRT브라운관에 비해 5분의 1 정도인 15W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9~10인치의 노트북용 LCD만 개발돼 있고 세계적으로 벽걸이형 LCD는 일본 샤프사만이 시제품을 선보였다.

화상처리 반도체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미국 어레이사와 공동으로 멀티미디어용 정지화상 및 동화상을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압축 코프로세서(ICC)와 동화상 구현 코프로세서(MEC) 등 2종류의 반도체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제품의 개발을 위해 지난 90년 어레이사에 지분 참여 형태로 100만달러(3억원)을 투자했다.

삼성전자는 개발 결과를 14일 미국실리콘밸리내 스탠퍼드대학에서 개최되는 핫칩스(Hot Chips) 회의에서 발표하는 한편 개발된 제품을 이달말께 미국 현지와 국내에서 동사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생산시설도 이미 확보해 상용 샘플이 만들어지는대로 생산, 이를 세계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된 이미지압축 프로세서는 대용량의 화상 정보를 압축, 복원해주는 반도체로서 멀티미디어의 대중화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부품이다.

또 삼성전자는 현재 가로와 세로가 각각 1.72㎝인 칩크기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수행, 상품경쟁력이 뛰어난 제품 개발도 완료한 단계이다.

동화상 구현 프로세서(MEC)는 영화 등 움직이는 화상을 반도체 칩이 감지, 다음 장면에서 영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해 이를 화면상에 구현해주는 고난도 제품이다.

멀티미디어용 DSP칩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 등 극소수 회사만이 제품을 개발한 차세대 제품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력제품인 D램이나 마이크로프로세서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지점 화상회의 제어장치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는 국

내 최초로 원거리 다지점 화상회의 제어장치(MCU : Multipointing Control Unit)를 개발했다.

삼성전자 통신기술연구소가 멀티미디어 통신산업의 일환으로 4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1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장치는 ISDN(종합정보통신망)망을 통해 최대 24개 지역의 PC를 연결해 영상과 음성·데이터 등을 동시에 주고 받으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MCU는 화상회의에 참가하는 송신자의 음성과 영상을 적절히 분배·제어하는 음성활성화 모드 및 모드 등의 독특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MCU의 영상·음성 및 각종 신호의 통신절차에 관한 내용을 국제 표준인 CCITTH 시리즈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화상회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센서업계 최초 ISO 9001 인증 획득!
(주)오토닉스

공장자동화에 필수 부품인 Digital Counter, Timer, Temperature Controller, Panel Meter, Tacho Meter, Line Speed Meter, Photo Electric Sensor, Proximity Switch, Rotary Encoder 등의 다양한 제품과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주)오토닉스(대표 : 박환기)는 생산 기술연구원 센서업계 최초로 근접스위치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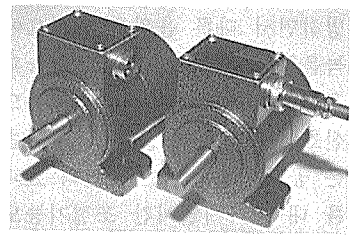
근접스위치 KS표시허가 획득을 시작으로 카운터, 타이머 10여종을 미국 UL 및 카나다 CUL마크를 동시에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94년 8월 센서업계로는 최초로 생산기술연구원 근접 스위치 전기종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세계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고객에게 보다 만족스런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로타리 엔코더 출시
(주)오토닉스

(주)오토닉스(대표 : 박환기)는 측면 고정식 축형 로타리 엔코더(Incremental Type)를 출시했다. 동제품은 DC 5~28V의 전원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Totem Pole 출력방식이다.

축의 관성 모멘트가 적으며 코넥터 접속방식의 대한 절연 쉴드 배선을 사용하였다. 회전수, 속도, 거리, 위치의 검출과 제어에 용이하며 F/V 컨버터와 접속하여 회전에 비례한 DC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리시버, 독일 영화전문지에서 최고의 모델로 선정
(주)인켈

(주)인켈(대표 : 최석한)의 AV용 리시버(모델명 : RV5030R)가 독일의 영화전문지인 "HEIM-KINO"지로부터 최고의 리시버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1,000마르크대(한화 : 511,000원)의 돌비 서라운드 리시버를 대상으로한 이번 평가에서 JVC, Kenwood, Onkyo, Yamaha 등의 세계 유수의 엠프 등과 함께 디자인, 기능 성능 등을 테스트한 결과 일본의 제품들을 제치고 최고의 모델로 평가, 선정되었다.

독일의 유명 영화전문지인 이 잡지에서 "RV5030R은 영화감상시 현장감 재현 및 생생한 음향을 느낄 수 있어 AV용으로 평가모델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모델은 성능면에서는 3가지의 서라운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디오물이나 돌비 서라운드로 녹음된 기타 음원을 시청/청취할 때 3차원적 입체음향을 즐길수 있다. 그리고 하드록같은 음악도 잘 소

화시키며 마치 홀에서 청취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기능면에서는 비디오를 더빙하면서 다른 음원을 비디오에 녹음할 수 있는 더빙편집기능과 후방 스피커로 재현하는 서라운드 신호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공간의 효과를 내주는 지연시간 조절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고 평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AV시스템인 SAV5000의 리시버로 구성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켈은 지난해 RV6010R의 호평에 이어 차츰 커져가는 AV시장에서 자사 리시버가 연이어 해외에서 호평받음으로써 외산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UL-TCP 획득
(주)인켈

(주)인켈(대표 : 최석한)은 미국수출때 반드시 필요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안전규격 인증시험소)를 국내에서 스스로 부착할 수 있는 UL-TCP(전규격 제조자 자체승인제도)를 획득했다.

인켈이 이번에 따낸 UL-TCP (Total Certification Program)는 지금까지의 국제규격 인증으로선 최상급제도로써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오디오에 대해 미국측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규격을 인켈의 자체검사만으로 미국현지의 안전규격 인증시험소인 UL측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인켈은 지난 91년부터 일부 UL의 현지시험을 국내에서 실시해 이에대한 시험평가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UL의 CTDP(Client Test Data Program) 일명 UL-MDP (제조자 시험평가서 제출승인제도)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ISO 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UL-TCP을 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여 이번에 미국 현지시험을 완전 면제받을 수 있는 UL-TCP를 딴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획득한 것으로서 앞으로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급형 컬러 TV 판매
(주)인켈

AV전문업체인 (주)인켈(대표 : 최석한)이 보급형 29인치(68cm형 TV. 모델명 ICT-2940)를 판매한다.

이번에 나온 TV는 지난해 나온 돌비 프로로직 TV(ICT-2900)의 후속모델로서 첨단 자동설정 하이터치 시스템을 채용한 TV이다.

평면 사각브라운관을 채용, S-VHS 입력시 800 Line의 고선명도를 가지고 있어 미세한 물체까지도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실현하였다.

첨단 자동설정 하이터치 시스템을 채용, 꺼짐, 표준, 부드러운 화면, 밝은 화면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사용이 편리하게끔 설계되었다.

돔형 스피커 채용에 의한 현장감을 재현하며, 현장감과 임장감을 살려주는 와이드사운드를 채용하여 보다 생생한 AV를 느낄수 있다.

아울러 외관은 어느 장소, 어느 분위기에도 잘 조화되도록 설계된 뉴감각의 공간 절약형 Compact Slim타입의 디자인이다.

EMC 개발 양산
제일 모직(주)

제일모직이 웨이퍼 리드프레임과 더불어 반도체 3대소재의 하나인 에폭시몰딩 컴파운드(EMC)를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

EMC는 반도체를 열어 수분 먼지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및 특성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열경화성 복합재료로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지금까지 수요량의 대부분을 일본 히타치 니토사 등에서 수입, 조달해

왔다.

제일모직은 화성연구소(경기도 의왕시) 옆에 자체 기술로 연산 3천t 규모의 EMC공장을 완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제일모직은 이 공장에 고기능 제품의 설계가 가능한 컴퓨터지원 엔지니어링(CAE)기법을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특수원료를 활용해 성형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EMC를 생산, 9월부터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LCD 사업 대폭 강화
한국전자(주)

한국전자(대표 : 곽정소)는 오는 '96년까지 구미 LCD 생산공장을 건평 2,500평 규모로 확장, TN 및 STN LCD 겸용 생산라인을 새로 설치해 '96년 하반기부터 중소형 STN LCD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N급 LCD의 생산능력도 현재 월 700평방미터에서 내년까지는 월 1,200평방미터 규모로 늘리는 한편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 SI 업체로 선정
한국컴퓨터(주)

한국컴퓨터(주)(대표 : 한홍섭)는 최근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도면작성 및 관리시스템, 문서작성 및 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SI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한국컴퓨터가 수주한 업무는 일반 통계 업무, 도면작성 및 관리시스템, 문서작성 및 관리시스템, 도면계정 및 출도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작업처리 관리시스템, CAD Integration 등이다.

이번에 한국컴퓨터가 공급한 시스템은 일반통계 관리용 시스템으로 타이컴, 데이터베이스 서버용으로 HP기종, 유닉스 워크스테이션 등으로 총계약 금액은 12여억원이다.

동사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클라이언트/서버 환경구축,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축, 완벽한 네트워킹 구축, 장래의 신기술 수용 및 확장성 보유 등에 주력을 둘 방침이다.

동사는 지난 88년부터 병무청, 의료보험전산망, 은행 CD공동망 등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선정에는 한국컴퓨터가 현대, 삼성, 대우, 포스데이타, 쌍용, 선경 등과 경합해 동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난연성 PS 수지 양산
효성바스프(주)

효성바스프(대표 : 추지석)가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 성형가공성이 뛰어난 난연 폴리스티렌(PS) 수지를 개발, 대량생산에 나섰다.

효성바스프는 부설 울산연구소가 기존의 PS에 인체에 해가 없는 난연 제인 비데카브롬을 혼합, 난연 폴리스티렌수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또 국내외 전자업체의 품질평가결과 기존수지에 비해 열안전성 유동성 등 물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효성바스프는 이처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난연 폴리스티렌수지에 대해 최근 미안전규격(UL)을 획득했다.

효성바스프는 난연 폴리스티렌수지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였다.

효성은 이 제품을 기존의 울산 PS공장에서 연 1만t 규모로 생산, 9월부터 가전제품 및 사무용기기의 외장제품 등으로 국내 및 동남아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TFT-LCD '96년 양산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가 TFT-LCD(초박박액정표시장치)생산공장을 9월에 착공, 오는 96년부터 본격 양산에 나선다.

동사는 경기도 이천공장에 3,000억원을 투자, TFT-LCD 생산공장을 올해말까지 완공하고 설비도입과 시험생산을 거쳐 96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사의 TFT-LCD 공장은 대지 45,000평 연건평 13,000평 크기이며 원재료인 패널을 10인치 기준으로 월 4만장씩 가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회사는 TFT-LCD양산을 위해 지난 92년 미국에 설립한 기술개발전문회사인 이미지퀘스트사에서 올해초 TFT-LCD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동사는 TFT-LCD의 핵심부품인 컬러필터도 자체생산한다는 방침아래 이미지퀘스트사를 통해 컬러필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T-LCD는 반도체에 이어 「제2의 산업의 쌀」로 불리는 LCD(액정표시장치)의 최첨단 재품으로 벽걸이형 TV 등 차세대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컬러TV 브라운관이나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기기의 계측기 등을 대체. 오는 2000년에 약 13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대우통신(주)	'83. 9. 1
(주)동해정보통신	'86. 9. 1
(주)큐닉스컴퓨터	'81. 9. 1
삼성휴렛팩커드(주)	'84. 9. 1
(주)삼익악기	'58. 9. 1
(주)삼화휴즈	'74. 9. 1
유영통신	'90. 9. 1
한국화낙(주)	'78. 9. 1
학명전자악기	'79. 9. 1
(주)한국컴퓨터테크	'84. 9. 1
(주)조우니컴퓨터	'83. 9. 1
석정전자(주)	'87. 9. 1
내외반도체(주)	'81. 9. 2
세화전자(주)	'88. 9. 2
금석전파(주)	'83. 9. 3
삼원전자공업(주)	'73. 9. 5
(주)태평양시스템	'82. 9. 5
한국음향(주)	'73. 9. 8
금성포스타(주)	'71. 9. 9
한국전자(주)	'69. 9. 9
삼우통신공업(주)	'79. 9. 12
(주)디지콤	'86. 9. 15
싸니전기공업(주)	'66. 9. 15
우로전자(주)	'87. 9. 15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주)태광	'76. 9. 15
(주)로움코리아	'72. 9. 15
(주)한국컴퓨그래피	'90. 9. 15
봉오전자공업(주)	'84. 9. 17
서울이동통신(주)	'92. 9. 17
대한노블.전자(주)	'73. 9. 18
(주)삼일부품	'87. 9. 18
(주)제일산전	'91. 9. 18
태일시스템(주)	'78. 9. 18
(주)기일	'83. 9. 19
대신전연(주)	'73. 9. 21
보정시엔아이(주)	'78. 9. 23
제일정밀공업(주)	'75. 9. 25
대덕전자(주)	'72. 9. 25
대협전자(주)	'86. 9. 26
고려전기(주)	'72. 9. 27
한국시그네틱스(주)	'66. 9. 27
한국신영(주)	'72. 9. 28
중앙전기공업(주)	'60. 9. 28
성남전자공업(주)	'73. 9. 28
(주)뉴멕스	'79. 9. 28
(주)새한정기	'73. 9. 29
대우전자(주)	'71. 9. 30